

# 영덕대게축제에서 지역문화 특성을 보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장사해수욕장

영덕은 포항시와 울진군, 청송군, 영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경상북도 동북부에 위치한다. 대체로 온후한 기후대에 속하며 봄이 짧고 가을이 길다. 여름과 겨울간의 온도격차로 인해 과실성숙에 유리한 조건을 보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해안과 함께 전국 최대의 긴 백사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천종의 풍부한 어족자원을 가지고 있다. 태백산맥의 동남쪽 줄기로 칠보산과 팔각산이 형성되어 있으며 병곡 및 영해에 광대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주곡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특산물로는 영덕대게와 영덕복숭아, 송이버섯, 오십천은어가 있다.

영덕군은 전국 5대 관광권역 24개소 관광권 중 동남관광권 내 주왕산권에 속하며, 주왕산권은 12개소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다. 주요관광지로는 조롱박공원과 삼사해상공원, 주왕산국립공원을 비롯해 팔공산·칠보산·옥계계곡·용추폭포 등과 고래불·대진·영리·덕친·부흥·장사 해수욕장이 있다. 특히 칠보산은 7가지 보물(돌옷·더덕·산삼·황기·멧돼지·구리·철)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여기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여름철 피서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영덕군은 인구 4만 2천 명, 인구대비 비경제활동 인구가 약 40% 정도로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진 곳이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세심하게 구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이에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추진하고 있다. 외부 방문객 900만 명 유치(경제효과 3,000억)와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 관광축제, 외국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별 틈새형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

고자 지역 관광 진흥협의회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유지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덕에는 해안 53 km를 따라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춘 해수욕장이 10곳이나 있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2005년~2008년까지 4회 연속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대게를 비롯해 먹을거리가 사시사철 넘쳐나고, 다양한 테마형 휴양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간을 활용한 야간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다양한 관광 이벤트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곳이다.

즉 영덕은 산과 바다를 모두 중요한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곳으로 내륙 쪽으로는 고택들을 비롯한 전통문화유산이 많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문화 활성화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며 바다 쪽으로 나오면 대게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자원과 바다풍경을 활용하여 외부인들의 관심을 끄는 곳이다.

이러한 다양한 영덕의 특성들 중 본고에는 영덕대게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수산자원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자원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것이 영덕이라는 지역에 미친 지역활성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덕대게라 하면 강구항과 축산항 앞바다에서 잡히는 대게를 말하지만 요즘은 영덕에서 거래되는 대게를 모두 영덕대게라고 부른다. 일반 수산물 가게에서 판매되는 대게들이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영덕대게로 불릴 정도로 영덕의 대게가 가지는 대외적 지명도는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했던 1930년대에 대게를 비롯한 해산물의 중간집하지가 영덕으로 고착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덕분에 같은 바다 출신 대게라도 영덕에

지난 3월 제 15 회째를 맞이한 영덕대게축제는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동해안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축제이다.



서 팔리면 '영덕대게'라는 이름이 붙어 귀하신 몸으로 대접을 받는다.

영덕대게는 12월부터 5월이 제철이며 영덕의 어민들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한 달 늦은 12월부터 잡기 시작한다. 몸통에서 뻗어나간 다리 모양이 대나무(竹)처럼 마디가 있으며 길쭉하고 곧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처럼 10개의 다리가 모두 제대로 붙어있고 살아 움직여야 하며, 같은 크기라도 속살이 얼마나 찻느냐에 따라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무거울수록 좋은 대게로 본다.

대게는 특히 겨울철 별미로 알려져 있으며 껍질에 많이 든 키틴은 체내 지방축적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며 지방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할 뿐 아니라 소화도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15회째를 맞은 영덕대게축제는 경상북도 2008년 우수축제, 2009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동해안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축제이다. 올해 축제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삼사해상공원과 강구항, 대게원조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며 영덕대게의 일생과 역사, 동해안 어부들의 삶과 애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연과 영덕대게 주제 홍보관 운영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내세우며 영덕대게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에 조성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축제는 경상북도,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련 협의회와 어업인 단체의 후원 아래 영덕군이 주관하며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영덕은 2005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대게 특구'로 지정되었다. 1998년 극심한 IMF 상황에서 경북지역의 관광객은 감소하였으나 영덕군의 관광객은 오히려 증가하여 호황을 누렸다. 이러한 영덕대게의 전국적인 명성과 브랜드 가치가 높은 특산물은 영덕군 지역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대게를 특화시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체류형관광지로 명소화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고용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영덕대게축제 프로그램 중 대게요리경연대회는 축제참여유치와 영덕대게의 우수성 및 홍보를 위한 대



외국인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켜  
외국인관광객과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관광산업발전사업에  
연계하여 관광사업  
Oneworld 체제와 셔틀버스 운영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큰  
축제가 질서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표 프로그램으로 서라벌대학 등 인근 대학의 전공자, 일반참가자들이 경연을 통해 기량을 펼치는 기회를 마련하여 개발된 요리를 상품화시키기도 하며 참가한 자들의 지역과 연계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영덕군은 친환경농업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입지조건을 활용해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려는 녹색성장사업의 노력이 합쳐져 미래지향적 사업의 트렌드인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bstantiality) 인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대계축제는 단순한 음식문화축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친환경문화 브랜드를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축제로 발전하는 길목에 서있다 하겠다.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그러하듯 영덕도 과거에는 농사와 어업에 의존하였으며 내륙지방은 복숭아 재배와 논농사 중심이었고, 해안지대 주민들은 수산업에 종사했다. 하지만 현재 축제가 열리는 강구항은 해돋이가 아름다운 항구로 우리나라 최대의 대계유통산지이다. 이점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모여져 지역의 음식과 특산물을 소재로 한 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1월 영덕해맞이축제’에 이어 ‘3월 영덕대계축제’,

‘5월 영덕물가지미축제’, ‘7월 영덕여름축제’, ‘8월 황금은어축제’ 등을 열어 전국 관광객을 모으고 있으며 지역의 고유성과 향토성을 반영한 연중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은 비단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축제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를 높이면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주한 미8군, 외국인교환학생, 동북 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등 외국인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켜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종합상황실 합동부스를 운영한 One-stop 체제와 셔틀버스 운영, 영덕군자원봉사센터·모범운전자회·해병전우회·자율방범대·공무원·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축제가 질서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특산물 판매와 판촉을 목적으로 시작된 축제의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듯이 축제의 개최로 인해 야기되는 소득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의 일반적인 참여정도가 낮거나, 또는 단순한 특산

강구항 요트장에 단둥해안을  
바라보면서 연인, 가족과 함께  
수상자전거를 타고 영덕대계를  
잡는 프로그램 마련하였으며  
요트 및 각종 수상 레저기구에  
참여해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물 판매에만 집착하여 축제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축제의 완성도와 문화·예술적 표현 정도가 아직은 미약하다는 지적은 귀 기울여 들을만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역 내 주민에 대한 홍보와 해설을 강화하고 참여를 촉진해야 하며 지역주민 스스로 즐겁게 노는 것 자체가 축제의 주요한 매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전시 및 공연, 체험, 부대 행사로 나누어지며 추진위원회, 영덕문화원,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대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며 각종 협회·단체가 다양한 부대행사를 담당한다. 삼사해상공원 안에는 영덕대계축제 주제홍보전시관을 만들어 어촌민속전시관을 연결한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계원조마를 기원제를 시작으로 영덕대계축제 개막식 및 축하공연이 행해진다. 강구항과 행사장을 돌며 고려태조(왕건) 14년(서기931년) 예주를 처음 순시할 때 임금의 주안상에 특별한 음식으로 대계를 올렸다는 대계진상 재현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태조왕건행차'와 대계진상 및 대계잡이 어부

의 삶을 그린 연극공연은 축제를 소재로 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한 대표적인 공연이다. 대형수조에 미리 풀어놓은 영덕대계를 낚시로 잡는 프로그램에서는 영덕대계를 2~5마리 정도 잡을 수 있으며 황금반지를 찬 영덕대계를 낚을 수 있는 '황금영덕대계 낚시체험'과 '영덕대계 깜짝 경매' 등은 영덕대계 축제의 대표적인 체험형 축제로 정착되었다.

영덕풍력발전단지과 해맞이공원, 대계원조마을, 죽도산, 동해 일출을 바라보는 걷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영덕블루로드 도보여행'도 열린다. 바닷가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한 것 역시 공간 활용과 축제 이미지 제고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강구항 요트장에는 동해안을 바라보면서 연인, 가족과 함께 수상자전거를 타고 영덕대계를 잡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요트 및 각종 수상 레저기구에 참여해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영덕대계라면과 대계수제비, 대계비빔밥, 대계파전 등 대계를 주제로 먹거리를 파는 대계식당도 운영되며 읍면의 대표 향토음식을 준비해 관광객들을 사로잡는다.

[사진제공 | 류정아]